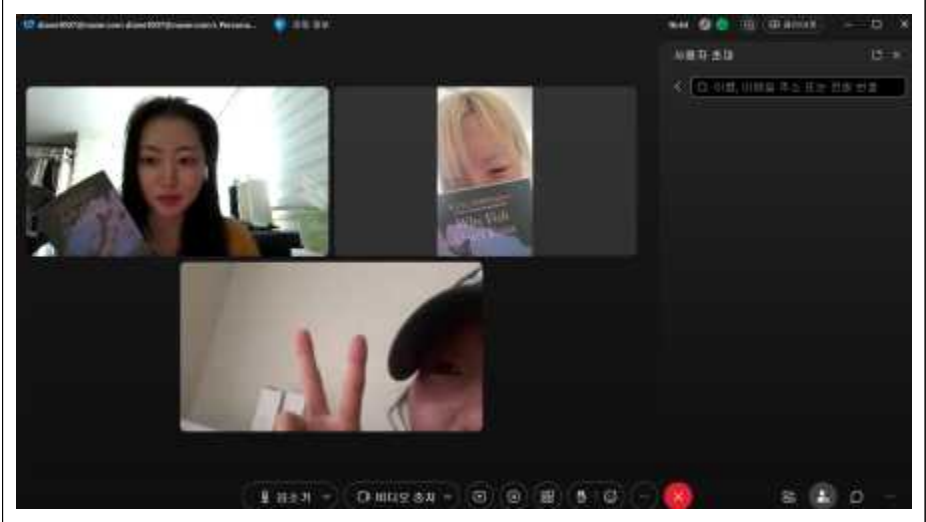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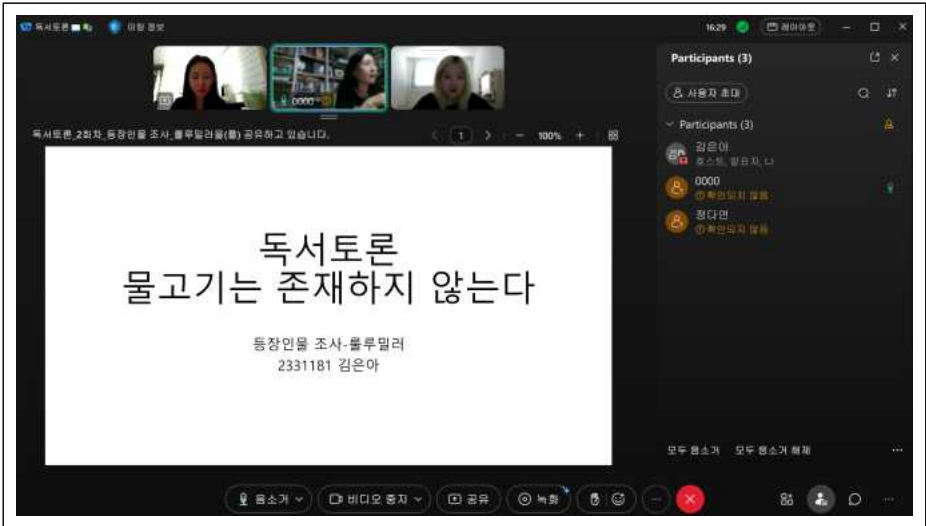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DTM

| | | | |
|-----|-------|--|--------------------|
| 1주차 | 일시 | 4월 12일 10 : 55 웹엑스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김은아(2331181) | O |
| | | 변산희(2311041) | O |
| | | 정다연(2311032) | O |
| | | | |
| | 진도 | 도서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 진도페이지: 13p. ~ 50p. |
| | 토론 내용 |  <p>[좌측부터 김은아, 정다연, 변산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에 드는 장면 및 인상깊었던 장면 공유하기 •책 읽기 전 반전이 있다는 후기를 보았는데 반전이 있었는가? -(변산희)이야기 속의 반전은 없지만 비평이 시작되면서 반전이 된다. •이 책의 가장 큰 요소가 반전인데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김은아, 정다연)소설이지만 내용상 소설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느꼈다. -(변산희)반전요소가 다른 소설에 비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비평이 시작되면서 반전이 시작된다. •등장인물 중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옹호하던 우생학이 그토록 많은 지지를 얻은 이유는 무엇이며, 최근까지도 그 신념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은아) ①과학적 뒷받침: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과학적 지식 수준에서는 우생학이 일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당시에는 진화론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우생학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진 듯하다. 최근에는 우생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이지만, 당시에는 부족한 지식과 근거 탓에, 우생학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정다연) ②사회적, 정치적 환경: 우생학은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이념을 지지한다. 이는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인종 차별과 인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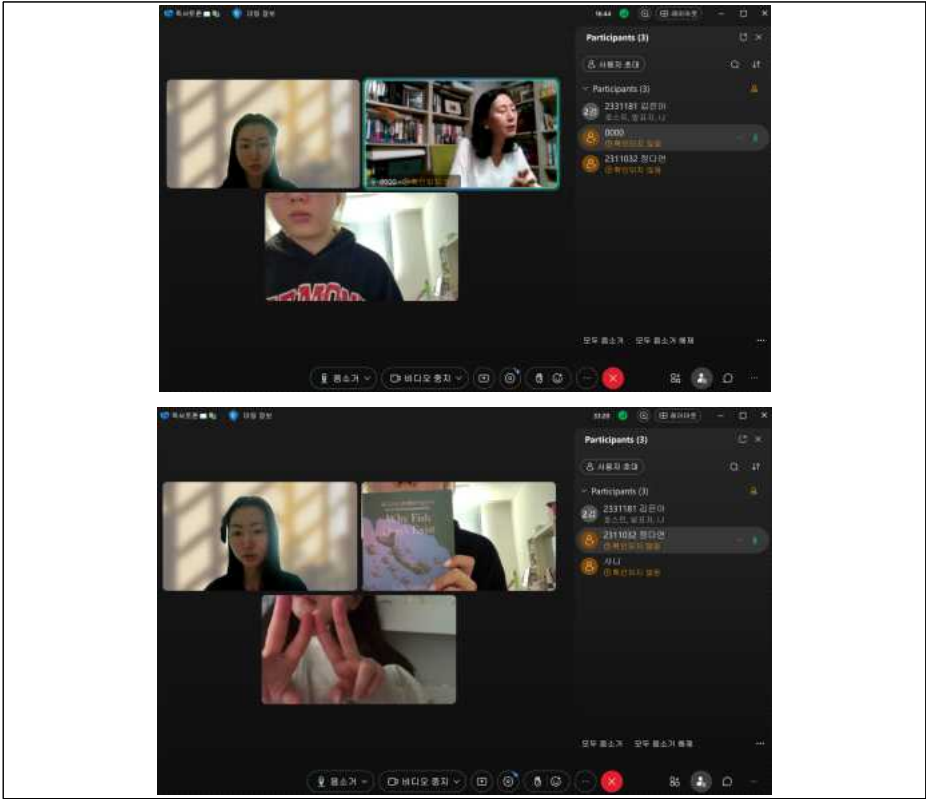
| | | |
|--|--|--|
| | | <p>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슈였던 시기에 더욱 부각되었다. 당시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우생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p> <p>(변산희) ③사회적, 문화적 영향: 우생학은 특정 인종의 우월성을 믿는 것이므로,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의 선입견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우생학이 일부 사회나 집단에서 여전히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p> <p>(종합)우생학이 최근까지도 일부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사회나 집단에서는 여전히 인종 차별이나 인종 간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시각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상은 우생학의 이념과 일치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지속되어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각이 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우생학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보다 잘 알려져 있으며, 인종 차별과 인종 우월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적 환경이 더욱 확립되고 있다.</p> <p>•책의 초반부를 읽고 나눈 자유로운 의견</p> <p>-미들네임을 자기맘대로 지을 수 있다는 부분이 신기했음</p> <p>-별을 좋아해서 이름을 스타로 지었다는게 인상깊었음</p> <p>-그림</p> <p>챕터4의 삽화가 인상깊었음</p> <p>그림체가 기괴해서 눈길이 감</p> |
|--|--|--|

| | | | |
|-----|-------|--|---------------------|
| 2주차 | 일시 | 4월 19일 11 : 00 웹엑스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김은아(2331181) | O |
| | | 변산희(2311041) | X |
| | | 정다연(2311032) | O |
| | | | |
| | 진도 | 도서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 진도페이지: 51p. ~ 152p. |
| | |  | |
| | | [좌측부터 김은아, 서영운 교수님, 정다연] | |

| | | |
|--|--|--|
| | | <p>-등장인물 조사 및 토론 김은아-룰루 밀러, 정다연-루이 아가시, 변산희-데이비드 스타 조던(결석)</p> <p>•(김은아-룰루밀러) ppt 발표 내용 첨부</p> <p><어린 시절과 가정환경> 룰루 밀러는 조숙한 아이로, 어린 시절부터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과학자였던 아버지는 삶의 진실을 직설적으로 전하며, "인생은 아무 의미 없고, 운명도, 계획도 없으며, 그저 태어나서 죽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안정적 믿음' 대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식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네 뜻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이는 어린 룰루 밀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한 룰루 밀러는 방황하게 됩니다.</p> <p><성장과 혼돈> 청소년기 룰루 밀러는 한 소년과 사랑에 빠져 일시적으로 안식을 찾는 듯했으나,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발견하게 되면서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며 혼돈 속에 빠져듭니다. 그녀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p> <p><데이비드 조던과의 만남> 그녀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는 과학자 데이비드 조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룰루 밀러는 조던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으려 하였고, 그의 우직한 연구 자세가 자신의 혼돈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조던의 생애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p> <p><데이비드 조던의 그림자> 그러나 밀러는 조던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던은 우생학자였던 스승의 사상을 따랐고, 그 사상을 어류 연구에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는 나쁜 물고기를 분류하고, 나아가 나쁜 형질을 가진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스탠포드 대학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창립자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또한, 그는 물고기를 찾아내기 위해 대포와 독약을 사용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룰루 밀러는 오랜 시간 의지했던 멘토를 잃게 됩니다.</p> <p><작가의 깨달음과 메시지> 밀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포기할 수 있는지, 왜 포기해야 하는지, 포기하게 되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아가시나 조던의 생애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삶의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p> <p><결론>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개인적 경험과 혼돈 속에서 찾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인생의 혼돈 속에서도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제시합니다. 밀러의 삶</p> |
|--|--|--|

| | |
|--|---|
| | <p>과 그 깨달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과학과 철학적 탐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p> <p>•(정다연-루이 아가시)</p> <p><생애></p> <p>루이 아가시는 1807년 스위스의 모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연사에 관심을 보였으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뮌헨 대학교에서 의학과 자연사를 공부했습니다. 아가시는 특히 화석과 생물학적 다양성에 매료되었고, 그의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p> <p><빙하학 연구></p> <p>아가시는 빙하가 대륙을 덮은 '빙하기' 이론을 제안하여 현대 빙하학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알프스와 북유럽의 빙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빙하의 이동과 지형 변화에 관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당시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빙하가 지구의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널리 알렸습니다.</p> <p><고생물학 연구></p> <p>아가시는 화석 어류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고대 어류 화석을 분류하고 연구하여 고생물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화석 어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담고 있으며, 이는 당시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p> <p><논란></p> <p>루이 아가시는 과학적 업적 외에도 인종에 대한 논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인종론을 주장하며 인종 차별적 견해를 지지하였고, 이는 그의 유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학적 공헌은 빙하학과 고생물학의 기초를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p> <p><"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루이 아가시></p> <p>룰루 밀러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루이 아가시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책은 아가시의 생애와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그의 한계와 오류를 조명하며 과학적 탐구의 복잡성을 탐구합니다. 밀러는 아가시의 생물 분류 체계와 인종에 대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과학이 어떻게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p> <p><결론></p> <p>루이 아가시는 빙하학과 고생물학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과학자입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 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종 차별적 견해는 그의 유산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복잡성을 탐구하며, 아가시의 업적과 한계를 균형 있게 조명하는 책입니다. 아가시의 생애와 업적은 과학의 발전과 그 이면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p> <p>-교수님 피드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큐와 개인의 성장에 대해 다룬 책임.•이 책이 자기성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게 무엇인지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정체성과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읽기 •왜 이 책을 선정하였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 제목에 대해 생각해보기 •언어학적으로 이름에 대해 생각해보기-랜덤하게 불러서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데, 물고기 또한 물고기라고 명명했기에 물고기라고 불리게 됨. 제목이 많은 것을 의미함. 명명 자체가 카테고리이고, 이를 통해 구분이 됨.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룰루밀러의 자기성장과 우생학적 사고를 가진 데이비드의 실체를 파고 들어가며 생각해보기 |
|--|--|---|

| | | | |
|-----|-------|--|----------------------|
| 3주차 | 일시 | 05월 03일 11 : 00 웹엑스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김은아(2331181) | O |
| | | 변산희(2311041) | O |
| | | 정다연(2311032) | O |
| | | | |
| | 진도 | 도서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 진도페이지: 152p. ~ 229p. |
| | 토론 내용 | <div>  <p>[좌측부터 위 김은아, 서영윤 교수님, 정다연 아래 김은아, 정다연, 변산희]</p> </div>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님 피드백 | |

| | | |
|--|--|---|
| | | <p>작의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중점으로 한 책임. 세상의 분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기. 작중 작가의 경우처럼 동성애자, 양성애자에 대한 이름이 붙여지고 분류가 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보기.</p> <p>•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목에 대한 생각 (김은아)</p> <p>이 책에서는 분류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분류는 과학적 연구와 인간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 책에서는 데이비드 조던과 그의 분류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분류의 개념이 관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p> <p>분류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분류의 한계와 오류도 존재한다. 특히 이 책을 통해 데이비드 조던의 연구를 통해 분류의 한계와 그로 인한 혼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게 한다.</p> <p>이와 관련하여 이름이라는 개념이 억압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름은 분류의 일환으로서, 어떤 것을 정의하고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름 뒤에는 종종 특정한 의미나 가치가 부여되며, 작가는 이름과 분류가 다양한 개념이나 특성을 한정하거나 억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려 하는 듯 하다.</p> <p>따라서 분류와 이름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인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깊게 생각해보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억압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p> <p>(정다연)</p> <p>이 책에서는 우생학과 관련하여 데이비드 조던의 연구와 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다루어지고 있다.</p> <p>데이비드 조던은 물고기에 이름을 붙이는 활동을 통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는 이름과 특성을 붙이는 과정에서 우생학적 이론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롤루 밀러는 이러한 분류와 이름 붙이기가 실제 개체나 개인을 이해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개체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개체 자체를 보지 못하고, 특정한 특성이나 분류에 얽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p> <p>롤루 밀러는 자신에게도 동성애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을 예시로 들며, 분류와 이름 붙이기의 한계를 강조한다. 이는 특정한 분류나 이름이 개인을 한정 짓고, 그들의 복잡한 특성과 정체성을 압축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관점은 데이비드 조던의 우생학적 이론과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통해 세상의 분류와 이름 붙이기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고 있다.</p> |
|--|--|---|

| | | | |
|-----|-------|--------------------|-------|
| 4주차 | 일시 | 5월 10일 11 : 00 웹엑스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 |
|--|-------|---|-----------|
| | | 김은아(2331181) | O |
| | | 변산희(2311041) | O |
| | | 정다연(2311032) | O |
| | | | |
| | | | |
| | 진도 | 도서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 진도페이지: 완독 |
| | 토론 내용 | <div data-bbox="528 479 1457 1012" data-label="Image"> </div> | |
| | | <p>[좌측부터 김은아, 정다연, 변산희]</p> <p>이 책이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총정리하여 발표 및 리뷰를 진행함.</p> <p>•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 (김은아) 과학이라는 것은 늘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파괴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법칙 뒤에는 그 법칙을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범주나 척도에는 지배자가 존재하고, 그 지배자의 가치와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자연은 인위적인 질서로 규정지를 수 없다. 인간의 잣대에서 이를 판단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판단하고, 분류된 기준을 보았을 때, 이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p> <p>(변산희) 책에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학문적으로 ‘어류’라는 범주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나는 책을 읽으면서 ‘학문적 범주를 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자연의 일개 구성원에 불과한 인간이 자연을 범주화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오만일 뿐이다.’ 라는 해석이 저자의 관점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룰루 밀러는 우생학을 주장하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비판하면서 독자들에게 생명에 관한 고찰을 유도하고 신념과 가치관을 관점의 차이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을 통해 지식도 결국 인간의 주관 아래 형성된 것이기에 지식의 본질적 속성이 언어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p> | |

(정다연)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내 생각을 써보자면 작가는 언어라는 게 사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특히나 양성애자인 그녀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지으면서 이성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말’ 때문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고, 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직도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언어나 사고의 틀에 갇혀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에 남는 장면 및 이유

(정다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아무래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아닐까 싶다. 책의 초반부에서 내가 느꼈던 그의 첫인상은 자연을 사랑하고 탐구하길 좋아하는 어린 소년이었으나 결국 글의 후미에는 권력과 명성에 눈이 먼 여타 소설 속 악역의 성장 과정을 담은 모습처럼 보였다. 특히나 어류를 조사하기 위해 물고기를 독이나 폭탄을 이용하여 잡는 그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 자연을 좋아했던 그의 어릴 적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이름 붙이기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작가는 그의 온 인생이었던 이름 붙이기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책에 담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그를 롤모델 삼았던 자신을 그의 인생을 통해 돌아보며 결국 자신의 또 개개인의 의미에 대해서 찾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변산희)

가장 기억에 남은 구절은 "절대 잊지 마라. 너한테는 내가 아무리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는 한 마리의 개미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이다. 이는 롤루 밀러의 아버지가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모든 사람도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이기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엑스트라일 수 있다는 나의 생각과 유사해 인상적이었다.

책에 따르면 철학적 관점에서는 누군가가 그것들의 이름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그것은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 구절은 이름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생학에 관한 견해

(정다연)당시 인간이 적합자와 부 적합자 라는 말로 구분 짓고 부 적합자들을 멸하려는 행위를 정당화하며 실제로 그것들이 받아들여졌던 그때처럼, 그러나 지금은 당연히 적합자와 부 적합자들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언어가 사고를 한정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작가의 롤모델이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모습을 고발하는 사례로도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종견해

| | |
|--|---|
| | <p>(김은아)</p> <p>사람들이 다양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우리는 자신이 친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나도 경계심을 갖고, 다른 것들을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말처럼 지구의 시선에서 본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다양한 존재이다. 결국 작가는 해답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찾는다는데,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다. 이런 다양한 시각과 방법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진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정다연)</p> <p>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부정당했던 삶의 의미를 찾아 멀리 돌아온 작가의 이야기가 공감이 잘 되지 않기도 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했던 것 같다. 나는 딱히 나 자신의 의미나 삶의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하지도 않고 굳이 찾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녀의 어릴 적 이야기를 보고 나니 애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부모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큰 트라우마로 남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아무튼, 결국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개개인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과학, 자서전, 회고록 등 다양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싶어도 결국 한 가지 이야기로 귀결되는 점에서 잘 쓰인 책이라고 생각했다. 특히나 나에게는 동성애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해 볼 수 있던 좋은 경험이라고 느꼈다.</p> <p>(변산희)</p> <p>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관점은 없으며, 어떤 일یدن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찌 보면 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책의 결론은 나에게 다양한 관점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 아쉬운 점은 장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장르는 에세이지만 철학, 과학, 추리 등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졌다. 또한 전개 시점이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우생학에 대한 비판 역시 작가의 주관일 뿐이므로 작가가 주장하는 ‘절대적인 관점은 없다.’는 주장과 모순된다.</p> |
|--|---|

| 활동 후기 | No. | 클럽원 정보 | 후기 내용 |
|----------|-----|------------------|--|
| | 1 | 김은아 (2331181) | 종종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 좋은 경험이 될거라 생각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설을 즐겨 읽던 제게 이 책은 새로운 장르라 시도하기 어려웠지만, 함께 책을 읽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팀원들의 의견과 인물조사를 통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처음 참여한 독서 토론 활동이었지만, 이런 경험이 매우 가치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 2 | 변산희 (2311041) | 평소에 독서를 많이하는 편은 아니지만 토론이나 토의는 좋아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회차에 걸쳐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책의 내용이어려웠음에도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나의생각만이 아닌 새로운 시각도 알 수 있었고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여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
| | 3 | 정다연 (2311032) | 독서 토론 활동은 처음이었는데, 활동을 통해서 도서 선정, 책을 읽는 목적 등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친구들과 의견과 생각을 서로 공유하며 책을 읽으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 | 4 | | |
| | 5 | | |